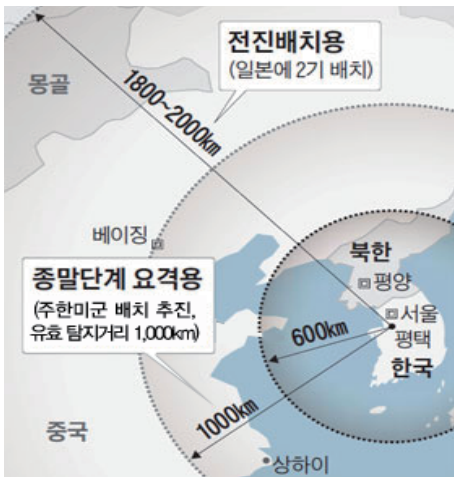


# 사드가 북핵미사일 대응용? **NO! 중국을 겨냥한 것!**

미국이 한국에 사드(THAAD)를 배치하려는 것은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미일 주도의 동북아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하려는 것!



사드의 레이더(AN/TPY-2)는 종말단계용이라해도 베이징이나 상하이 등 중국의 주요 미사일 기지를 살살이 들여다 볼 수 있다.

##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가 아님!

- 사드는 주로 사거리 1,000Km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무기로, 대부분의 탄도미사일이 사거리 500km 이하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어렵습니다.
- 노동미사일은 사거리 1,000km 이상의 중거리 미사일이나 이는 주로 일본이나 주일미군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로,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.
- 북한이 설령 노동미사일로 남한을 공격 한다고 해도 주한미군이나 한국군이 보유한 패트리엇 미사일(PAC-3)로 요격이 가능합니다.



사드 도입비 : 총 4~8조 원

- 남한 전체 방어에 2~4개 포대 필요
- 1개 포대 가격(요격미사일 48기) : 2조 원
- 미사일 1발 당 가격 : 최소 110억 원 이상

사드 운영유지비 : 약 1조 2천억 원

- 터키의 경우, 20년 운영시
- 1년에 약 600억원 소요되는 셈

## 사드의 레이더(AN/TPY-2)는 미일로 날아가는 중국의 중·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한 것!

- 사드의 레이더는 상해, 북경, 다롄, 통화 등 중국 동·북부지역의 미사일 기지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.
- 따라서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면 미국과 일본으로 날아가는 중국의 중·장거리 미사일을 탐지해 미일 미사일 방어망에 '조기경보'를 제공해 줄 수 있게 됩니다.
- 한국군은 탐지거리 600~900Km의 그린 파인 레이더(2기)를 보유하고 있어 사드의 레이더를 배치하지 않더라도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.

## 사드의 요격 미사일은 주한미군을 겨냥해 날아오는 중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것!

- 사드의 요격미사일은 미중 간에 교전이 발생했을 때 주한미군 기지를 향해 날아올 중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(고도 40~150Km)하기 위한 것입니다.

**미국이 한국에  
사드를 배치하게 되면  
한국은 부지를 제공하고  
운영 유지비도 부담해야 할 판!**



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(02-712-7292) [www.peaceone.org](http://www.peaceone.org)

# 사드가 배치되면 **한중관계가 파탄** 나서 **안보**가 **위태**로워지고 **경제**도 **큰 타격!!**

미군은 이미 평택, 대구, 부산, 원주 등 5개 지역에서 사드 배치를 위한 부지 조사를 진행했으며, 군산과 광주도 후보지로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. 한미국방고위급회의에서 사드 배치를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.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기 위한 수순입니다. 사드 배치 지역은 당연히 중국 탄도미사일의 1차적인 공격 대상 지역이 됩니다. 더 늦기 전에 국민들이 나서서 사드 배치를 막아야 합니다.

“미국, 일본 위해  
우리 안보와 국익을  
희생하려는가?”



## 사드 한국 배치는 바보짓 : 한중관계를 적대적으로 만들어 안보 위협을 자초하는 꼴!

“한국이 미국의 사드 배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 
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마지노선을 파괴하는 것”

(중국언론 환구시보)

-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면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미일 동북아 엠디(MD)의 전초기지로 되어 대중, 대러 관계가 파탄납니다. 그 결과 주한미군뿐 아니라 한국군도 중국 탄도미사일의 직접적 타격 대상이 됩니다.
- 사드 배치로 한국이 미일의 동북아 엠디에 가담하게 되면 한미일 대 북중러 간 군사적 대결 구도가 형성돼 동북아에서 무한 군비경쟁이 벌어지고 신냉전적 대결 구도가 고착돼 안보 위협이 한층 높아집니다.
- 이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, 동북아 공동안보평화협력체 구축은 그 만큼 요원해질 것입니다.

## 사드 한국 배치는 바보짓 : 제1 교역국 중국과의 경제 관계 악화도 감수해야

- 중국은 한국의 제1 교역국이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(AIIB) 등 한국이 새로운 경제 활로를 찾는 데서 키를 쥐고 있습니다. 그러나 사드 배치로 중국과의 군사관계가 악화되면 뒤따라 중국과의 경제관계도 악화되어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.
- 러시아도 사드 배치에 반발하고 있으며, 사드 배치로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되면 나진-하산 프로젝트 등 대 북방 진출 기회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.

길이 아니면 가지 않아야 합니다.

사드 한국 배치는 국가와 민족의 장래에 ‘백해무익’ 합니다.